

# 조선대 치과병원 의료기술 中 수출

## 광주·전남 지역 최초 내년 청다오에 개원기로

올해 개원 30주년을 맞은 조선대학교 치과병원이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최초로 의료기술의 해외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조선대 치과병원(병원장 이상호 박사)은 중국 산둥성 청다오(靑島)시 국립 청도의과대학 부속 연태병원과 합작으로 현지 치과진료센터 개원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조선대 치과병원과 연태병원 관계자들은 지난 22일 조선대에서 회동을 갖고, 중국 현지 치과진료센터 개설과 조선대 의료진 파견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이뤘으며, 오는 12월께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12월 양해각서 체결

또 치과진료센터의 명칭과 수익 분배 등 세부적인 협의를 거쳐 이른바 내년 3월께 공동 또는 조선대 분원 형식의 치과진료센터를 개원한 뒤 현지 진료를 시작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조선대 치과병원은 2009년부터 교수 및 전공의(레지던트) 등 약 10~15명 규모의 의료

진을 중국에 파견하고, 연태병원 측은 치과진료센터 개설과 운영을 맡는 형태로 교류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조선대 치과병원 측은 중국 진출로 연간 1억원 가량의 수익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중국 내 치과의료 분야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새 수익 창출 모델로

특히 이번 의료기술 수출은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최초이며, 치과 의사 과잉공급으로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지역 의료계의 어려운 현실을 타파하는 새로운 수익창출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조선대 치과병원은 이번 중국 진출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경우 앞으로 중국 다른 지역과 베트남 등지에도 치과진료센터 개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중국 청도의과대학 부속 연태병원은 2천 병상 규모의 대형병원으로 중국 정부가 운영하고 있지만 숙련된 치과진료진의 수급이 어려워 밀려드는 치과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호 조선대 치과병원장은 “의료기술의 해외 수출은 포화상태에 이른 지역 치과 의료계의 숨통을 트고 다가올 글로벌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편”이라며 “한국 최고의 치과 의료기술을 보유한 조선대 치과병원이 개원 30주년을 맞아 해외로 의료기술을 수출하고, 이를 계기로 세계 최고의 치과병원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 개원 30주년 맞아 추진

한편 지난 1978년 10월26일 개원한 조선대 치과병원은 지난해까지 인턴 498명과 레지던트 403명 등 900여명의 치과 의사를 배출했으며, 최근에는 전자차트와 통합 처방전달시스템을 설치해 지역 내 소규모 치과병원과의 인터넷 원격진료를 가능하게 만드는 등 지역 거점병원 역할을 하고 있다.

조선대 치과병원 개원 30주년 기념식은 25일 오전 10시 조선대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1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인현기자 ahj@kwangju.co.kr



### 고교생 요리사들 떴다

광주지역 13개 전문계 학생들의 자치인 제5회 광주직업교육박람회 23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했다. '낙(樂)'을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25일까지 사흘동안 계속된다. 부대행사로 열린 조리분야 경진대회에 참가한 고교생들이 갈고 닦은 요리 실력을 뽐내고 있다.

광주지역 13개 전문계 학생들의 자치인 제5회 광주직업교육박람회가 23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했다. '낙(樂)'을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25일까지 사흘동안 계속된다. 부대행사로 열린 조리분야 경진대회에 참가한 고교생들이 갈고 닦은 요리 실력을 뽐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전남 전선 도난 5년간 614km 피해액 12억원 전국 최고

전국에서 전선 도난 피해가 가장 큰 지역은 전남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강용석 의원(한나라당)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5년 반동안 전남지역에서만 전선 614km가 도난당해 한전이 관할하는 전국 16개 시·도중 가장 피해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지역의 전선 도난을 돈으로 환산하면 12억7천만원에 달했으며 복구 비용도 20억7천만원 이상 들어갔

다. 전남에 이어 충남 415km(피해액 11억원) ▲경남 405km(9억원) ▲전북 334km(5억8천만원) ▲경기 북부 247km(5억원) ▲경기 206km(3억8천만원) 등의 순이었다. 전선 도난 피해가 가장 적은 곳은 7.9km(1천800만원)를 기록한 서울이었다.

전국적으로는 같은 기간 3천409km의 전선이 도난당해 70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전선 도난의 경우 수도권이 나 대도시보다 주로 호남이나 영남

등 지방에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지난해부터 전선 도난을 신고한 사람에게 최고 3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 포상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전선 도난 피해는 줄지 않고 있다.

강 의원은 “전선 도난으로 피해액이나 복구비용에 들어가는 예산이 적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예기치 않은 정전으로 인해 잘못된 큰 산업피해가 발생하는 등 2차 피해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형기자 gilee@kwangju.co.kr

### 국감 지적 '공장 가짜 패널' 의혹 수사

광주 경찰이 국정감사 당시 질의를 통해 의원이 제보한 산단 내 공장 가짜 샌드위치 패널 사용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23일 “광산구 평동산업단지 내 공장 건물에 값싼 가짜 샌드위치 패널이 사용됐다는 민주당 최규식 의원의 지적과 관련, 업체들을 대상으로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찰은 의심이 가는 9개 업체를 우선 수사대상으로 정해 업무와 건축허가·설계·시공·감리 관계자들을 불러 가짜 패널을 사용했는지 조사하고 전문기관에 감정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관련자들을 건축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가짜 패널 제조·유통업체로까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수사는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광주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 최 의원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최 의원은 당시 “평동산단의 업체들이 가짜 패널을 이용해 공장을 짓고 있다는 소문이 널리 퍼졌고 심지어 10여 개 업체의 이름까지 거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샌드위치 패널은 스티로폼 등 단열재의 양면에 철강 판을 부착한 것으로, 공장이나 창고 등의 벽체로 쓰이며 단열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현배기자 cki@kwangju.co.kr

### 박우량 신안군수

### 벌금 80만원 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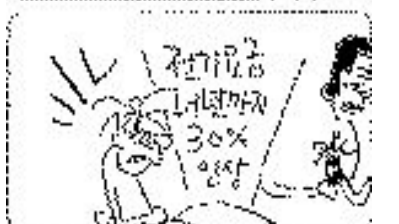
동문회에 참석해 업무추진비로 격려금을 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우량(53) 신안군수에게 벌금 80만원이 선고돼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현행 선거법은 자치단체장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단체장직을 잃게 된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23일 업무추진비로 동창회 격려금 등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박우량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목포=이상휴기자 lsh@kwangju.co.kr

## 나원침 (7635) 김장동



다 좋은 건국·산업자금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저렴 및 상담만행**

▶ 서울본사 : 02) 3445-0943  
▶ 나주공장 : 061) 337-0571

### "나를 '최가식'이라 부르네" 한탄

○탤런트 최진실씨가 자살하기 직전 마지막으로

통화했던 여성일간지 퀸(Queen)의 김모 기자가 퀸 11월호를 통해 고인이 목숨을 끊기 며칠 전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나눴던 대화를 공개.

○최씨는 자살 직전인 지난 2일 새벽 김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한참을 울다가 “내가 뭘 잘못했니. 죽고 싶어. 아니 죽을 거야! 우리 아이들을 부탁할게. 잘 지켜줘”라는 내용으로 7분34초간의 통화를 했다.

○최씨는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통화에서는 “사채설 유포자가 잡혔으니 사람들이 내 진실을 믿어줄 줄 알았어. 그런데 토론 게시판에는 아직도 나를 안재환을 죽였음으로 몰고 간 악덕 사채업자로 그대로 목인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라고 하소연.

○최씨는 이어 “내 이름은 '최진실'인데, 사람들은 나를 '최가식'이라고 부르네”라고 한탄했다.

/연합뉴스

뚜껑이 열리는 대한민국 최고의 나이트 광주침단 3,000명

**OPEN** **동**

11월 14(금)

**장윤정**

11월 14(금)

**호박**

광주침단 · **복스존**

**나이트**

15~16일 조항조	17~18일 송대관	20~21일 최진희
25일 박현민	27~28일 김수희	4~5일 김운도